

터키 총리, 헌법에서 세속주의 제거 배제

2016년 5월 5주차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4월 28일, [정치] 터키 총리, 헌법에서 세속주의
제거 배제

[참고자료]

Daily News, BBC News, Financial Times

새 헌법의 구상을 앞두고 터키 정치권 내 의견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터키 총리는 현 세속주의와 민주주의 체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종교적 헌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터키, 세속주의 흔들리나

지난 4월 27일 열린 만찬 회동에서 아흐메트 다우토을루(Ahmet Davutoğlu) 터키 총리는 “세속주의는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며 “새로운 헌법도 세속주의의 원칙하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터키 현지 매체인 Daily News는 터키 총리의 이런 발언이 이스마일 카르하만(Ismail Kahraman) 국회의장의 성명서를 의식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5일 집권 개발정의당(AKP) 소속 카르하만 국회의장은 “새 헌법에 세속주의적 개념이 자리할 공간은 없으며, 세속주의란 단어 자체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레셉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대통령은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사태에 특별한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 터키 부총리(Numan Kurtulmuş)는 당의 의견을 대표해야 할 카르하만 국회의장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동 우방국 터키의 움직임

오스만 투르크 제국 붕괴 직후인 1923년 무스타파 케말에 의해 터키 공화국이 수립됐다. 케말은 ‘6개의 화살’이라 일컫는 공화주의, 민족주의, 인민주의, 국가 통제, 세속주의, 혁명을 추진했다.

터키는 여성의 평등을 추구하고 아랍 문자 대신 서구식 알파벳을 채택했다. 특히 케말의 세속주의는 국민이 사회에서 이슬람교의 제약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학교나 관공서에서 무슬림 머리 스카프 착용을 금지하고, 금요일 대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정했다.

터키는 나토(NATO) 회원국 중 유일한 무슬림국가로 그간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하는 등 친(親)서방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집권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슬람교 성전을 토대로 한 종교적 헌법을 제시하며 터키 공화국 건국 이래 유지해온 세속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종교적 헌법을 바라보는 시각

현재로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개헌이 성공할지 여부가 미지수다. 대통령이 창당한 친이슬람주의 성향의 개발정의당(AKP) 지난 10년간 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최근 총선에서 총 550석 중 317석을 차지하며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또한 야당이 국교를 부인하고 세속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정교일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반발도 크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종교가 헌법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응답한 터키인은 13%에 불과했다. 특히 젊은층 반대 비율이 높았다. 인근 국가인 파키스탄의 경우 78%가 종교적 헌법을 찬성했다.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이슈분석은 지역 전문가로부터 별도의 자문을 구한 후 등재되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성 : 임 성 우

자문 : 이 지 원(경희대학교 박사)